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순례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아기 예수,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1678년, 부다페스트 미술관, 헝가리.〉

[제1독서]..... 1열왕 19,4-8

[제2독서]..... 에페 4,30-5,2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복음 환호송]

(◎ 9ㄱ)

◎ 알렐루야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복음] 요한 6,41-5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53] 오소서 예수여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82] 주 찬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그때에 ⁴¹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 ⁴²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고 말할 수 있는가?”
- ⁴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 ⁴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 ⁴⁵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 ⁴⁶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 ⁴⁷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⁴⁸ 나는 생명의 빵이다.
- ⁴⁹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 ⁵⁰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 ⁵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으로 비오 12세 교황은 1950년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 로 선포하였습니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 입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바로로 딸 콘스탄츠

묵상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원인 하느님과 당신을 먹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 있는 빵이신 예수님, 이 두 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오만으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말씀은 하느님 육화에 언제나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당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곧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곧 영원함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이루어진 요한 복음의 종말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물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전제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또한 구약의 하느님처럼 “나는 ……이다.”라는 계시의 형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결정적 차이점은, 만나가 그 자체로 썩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먹었던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천상 모후의 왕관 성모 대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테오토코스(Theotokos), 성모(聖母)로 선포되면서 봉헌과 헌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교회는 초기 고딕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측면 제단이나 마리아에게 헌정하는 ‘레이디 채플’을 부속건물로 두었고 대부분 제단화로 장식하였다.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1520)의 <성모 대관, 오디 제단화 Crowning of the Virgin-called the Oddi Altar-piece>는 이탈리아 중부 페루지아 지방의 성 프란체스코 알 프라토 교회의 측면 오디 경당의 제단화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1797년 바티칸 교황청과 나폴레옹이 맺은 툴렌노 조약에 의해 파리로 압수되었다. 교황 비오 7세는 1816년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그림을 반환받으며, 원본의 목판은 캔버스에 대체하였고 바티칸 박물관의 새로운 피나코테카 회화관으로 옮겼다. 관람객은 거대한 프레스코화가 장식하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거처이자 라파엘로의 작업장을 네 개로 구성해, 그와 제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라파엘로의 방(Stanze di Raffaello)에서 그림과 만난다.

성모 대관은 13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보편화된 기독교 도상학의 주요 주제로,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콰트로첸토(15세기)를 대표하는 명작을 남겼다. 마리아 생애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성모의 영면(Dormition)과 대관은 중세적 도그마가 아니라 성서 아가서(4,8), 시편(45,11-12), 요한묵시록(12,1-7)에 기반을 두었다. 천상과 지상 상하 이분법적 구성은 연결된 내러티브를 서술한다.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으며 천사들을 증인으로, 그리스도는 천상의 구름 옥좌에 앉은 성모님께 왕관을 씌운다. 하단 빈 무덤 주변의 12 사도들의 놀란 표정과 혼란스러운 시선은 각양각색이다. 마리아가 승천의 증거로 남긴 허리띠를 손에 쥔 중앙의 토마스 성인 양 옆에는, 책과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 성인과 참수 당한 검과 성서를 든 바오로 성인이 보인다. 관람객은 온전한 모습으로 승천한, 빈 무덤에 피어 있는 백합과 붉은 장미에서 마리아의 순결과 수난 그리고 사랑을 확인한다.



<성모대관>, 라파엘로 산치오, 1502-1504, 캔버스에 유채화, 267cm×163cm

라파엘로의 고결하고 영예로운 대관식은 초기 작품으로, 스승인 마에스트로 페루지노(Perugino)의 스타일을 답습했다는 평가와 함께 항상 지적의 대상이다. 상하 수평적 구성에서 역동적인 대각선의 빈 무덤과 사도들 뒤의 고요한 풍경은, 깊숙한 공간을 창출하며 숙련된 대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천상을 구름 위의 하늘로 설정해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의 전통적 아이콘인 왕관을 받는 마리아의 모습을 충실하게 묘사한다. 마리아의 의심 없는 믿음과 순명으로 영광스런 왕관을 부여받은 장면은, 신의 대관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성모 대관은 라파엘로의 마지막 유작이자 4미터가 넘는 압도적 걸작 <그리스도의 변용>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폴리노의 성모가 걸려 있다. 관람객은 효과적인 빛의 사용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상의 조화로 탄생한 호소력 짙은 독창적 화면이, 바티칸의 위용 넘치는 대작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함을 인식한다.

라파엘로가 묘사한 이 장면은 목주 기도 ‘영광의 신비’ 마지막 단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와 명확하게 일치한다. 마리아는 원죄 없는 동정녀로 지상 생활을 마치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자 영광의 면류관인 천상 모후의 관을 받는다. 마리아의 왕관은 부와 권력을 비유하는 금은보석의 세속적인 왕관이나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넘어서, 신성의 승리이자 영원한 영광을 상징한다. 라파엘로는 천상으로 승천해 축복받은 동정녀의 모습을 명작으로 남겨 시대와 예술을 넘어 기독교 전체의 헌신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공포하였고, 1954년 마리아를 천상의 모후, 레지나 켈리(Regina Coeli)로 선언하며 8월 22일을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성모 승천의 영광과 구원의 도구가 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기리는 8월이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마리아의 모성은 늘 실재하고 현존한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자비로운 호소를 간구한다.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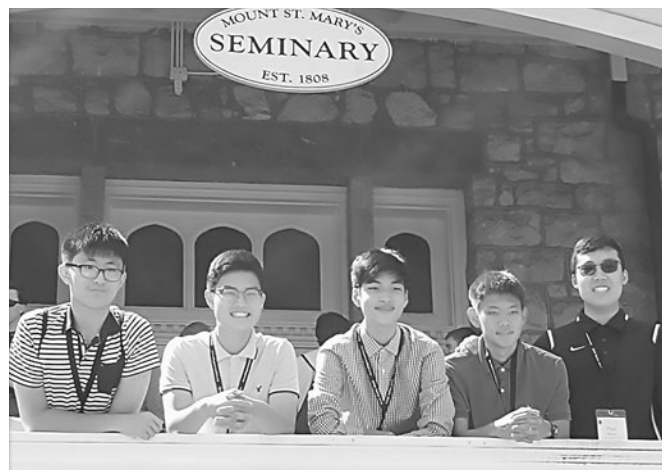
QUO VADIS CAMP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사제·수도·결혼·독신)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는 퀴바디스 캠프(Quo Vadis Camp)가 지난 7월 29일(일)부터 8월 2일(목)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 매년 여름에 주최하는 이 캠프는 참가 인원을 115명으로 제한해 제비뽑기로 그 수를 정했으며, 올해 본당에서 다섯 명이 참가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29일(일) 오전 11시 30분에 성당에 모여 캠프로 출발하기에 앞서 백인현 주임신부님과 방명준 신부님으로부터 축복과 격려를 받고 부모님들과 성소 후원회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캠프 장소인 Mount St. Mary Seminary (Emmitsburg, MD)로 떠났다.

캠프에 도착한 후 성소국 담당 신부인 Fr. Isenberg 신부님과 수도자들 그리고 삼십여 명의 신학생들은 캠프 참가자들을 일일이 환영해 주며 등록과 방 배정을 도와주었다. 방 배정이 끝나고 오후 네 시가 되자 마이클 주교님과 함께 모든 참가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미사를 봉헌했다. 마이클 주교님은 강론에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미사와 특강, 다양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와 묵상 등을 통해 각자의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후기”

Peter Chu, rising 10th grade

I personally enjoyed the experience of Quo Vadis camp. I really liked the fun activities they had over there. I liked talking to priests, deacons, and other seminarians about vocations and priesthood.

I also liked the meditation, which is when all the boys get a chance to pray and talk to God.

홍새찬 파비아노, rising 10th grade

Quo Vadis camp is a camp that you'll never forget. It's a camp that lets you see what your vocation is going to be and it helps you decide your future. It also got me closer to God and know the suffering Jesus Christ went through just because he loved us and wanted us to go to heaven. We didn't deserve all this but God is great all the time. Every day we got closer to God and Jesus Christ by praying, doing the rosary, and going to Mass. We also had recreation time where we got to play with the people there and do fun activities like soccer, potato salad, and a lot more. I made a lot of new friends and I hope that I can go next year too.

Kevin Kim, rising 12th grade

I'm thankful that I got the opportunity to attend Quo Vadis camp this year! This is my first and last year of this camp. I'm glad that I got a chance to talk to different Priests, Deacons and Seminarians about their vocation and their Priest hood. I'm glad that I went and got closer with Quo Vadis friends and leaders. When I first heard about Quo Vadis, I thought it was all about praying but there was many activities and a lot of teamwork games. My favorite part would be the small group discussion. I would encourage to everyone that it would be a great camp!

교황, 복사들에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시편 34,15)”를 주제성구로 한 제12차 국제 소년소녀 복사단 순례대회가 로마에서 막을 올렸다.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토)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13-23세의 7만명 이상의 복사들이 참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로 순례를 떠나는 7만여 명의 복사들이 운집한 성 베드로 광장의 특별알현을 통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강론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1코린 10,31)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약한다”고 (강론을) 시작했다. 교황은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윤리적 나침반의 바늘”이라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교황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1코린 10,33 참조)를 실천하라고 청중들을 격려했다. 교황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화색이 돌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신앙의 기쁨”을 모두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황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능하지 않은 선교

교황은 다음과 같이 이어 나갔다. “아마도 여러분은 궁금해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나에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선교는 확실히 위대한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는 비결을 알려준다(1코린 11,1 참조).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본받으면 우리는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2018 CCD
SUMMER CAMP
 UNITY

YEAH!



FUN, FRIENDSHIP & FAITH!

This past weekend, St. Paul Chung CCD Summer Camp 2018 was held at the Pine Creek Retreat Centre located in Gore, VA. A total of 36 parish children from rising 4th thru 8th grades participated in this year's camp.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teams with each team led by a rising 8th grader. From deciding the team slogan and cheering up each other during the various activities to cleaning dorms, these young children worked together and really demonstrated the trait of the theme "Unity."

On Saturday, Fr. Paik visited the campers with delectable ice cream for a treat! I want to thank to Mr. Yongwoo Kwon(Stephano) and all young adult volunteers as well as SosaYesa for their patience, kindness and love. Very special thanks go to Fr. Bang for his guidance and continuous support.

- **Yunchong Boyle**, CCD Asst. Principal



CCD Camp 2018 was a successful camp. This year's theme was **Unity**. With that we had our teams be the stones from the Gauntlet from the movie Avengers: Infinity War. Students had a lot of fun. We started with doing skits based on our bible verse, Psalms 133:1, "...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and sisters] dwell together as one!" on the first day. The next day was filled with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such as fill the bucket, water balloon toss, and relay. Then the students went to the pool and had fun with the staff in the afternoon. At evening we had some arts and craft and had vigil mass. On Sunday, we came back to church and did presentation for the parents. We showed the parents video of the camp experience, as well as doing the camp and group slogan! At the end the Purple team won with 12,800 points, Yellow team with 12,750 points, Blue with 12, 650 points, and Red team with 12,650 points. We hope to see the campers next year at CCD Camp 2019!

- **Yongwoo Kwon**(Stephano), Camp Director



LOL!



WOW!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2 단체장 회의

- 일시 : 8월 12일(일) 오전 11:30(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8월 12일(일) 오후 1시(B-3,4)

4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 8월 12일까지, 10시 미사 후
- 등록비: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보일 (703)371-3589

5 K of C 정기모임 및 Past Great Knight and Night

- 일시 : 8월 18일(토) 오후 5시, 이재원 야고보 형제덕
- 문의 : (703)623-8253

6 제79차 예비자 모임

- 접수 :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 (703)203-0332

7 제78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교리 : 8월 21일(화), 8월 22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찰고 : 8월 23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8월 24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 8월 26일(일) 오전 11:30(A-1,2)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8 2018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 2018년 9월 8일 -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등록 : 10시 미사 후 친교실 (8월 5일 - 8월 26일)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육욱영 교감 (703)598-5540

9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 8월 19일(일) 오전 11:30(B-3,4)

10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 8월 19일(일) 오전 11:30(A-1,2,3,4)

11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8월 19일(일) 오전 11:40(하상관 # 4,5)

12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8월 19일(일) 오후 1시(A-1,2)

13 셔틀버스 픽업 추가 및 셔틀버스 시간표

- 오전 9시 Tysons Corner 시니어 아파트에서도 픽업합니다.
- 알렉산드리아 시니어 아파트와 애난데일 시니어 아파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 셔틀버스 시간표 변경(8월부터) 오전 7:30(옛 IBM주차장) - 오후 1:30(성당)까지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14 꾸르실로 화심의 밤

- 일시 : 8월 24일(금) 오후 10시 - 새벽 1시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과 함께하는 화심의 시간에 모든 꾸르실리스따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15 장례절차에 대한 세미나(교육부/연령회)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A-1,2)
- 대상 : 전 신자
- 내용 : 장례 절차와 연령회의 역할
- 감사 : 홍의훈 요셉 연령회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6 2018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 기간 : 2018년 9월 4일 - 2018년 12월 2일
- 등록 : 2018년 8월 19일-9월 2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수강 과목 : 컴퓨터(초,중,고급), 스마트폰, 키보드, 수채화, 동양화, 한국어학, 스페인어, 문예창작,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 기타(Guitar), 색소폰, 손뜨개 교실, 요가, 라인댄스
- 대상 :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 \$50(점심 제공)
- 문의 : 김명희 올리아나 교장 (703)217-2775

☆ 사도임원회의가 8월 17일(금)에는 없습니다.

10시 미사 미사곡 변경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하느님의 어린양 : 324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12일(일)	연중 제19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13일(월)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4일(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5일(수)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오전 11시, 오후 8시, 성당)
16일(목)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7일(금)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임원회의 없음
18일(토)	연중 제19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8월 19일(일)	연중 제20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파티마 세계사도직 임원회(오전 11:30, 하상관 #108), 베드로회 정기모임(오후 1시, B-1),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9주간 : 2 역대 8-13, 사도 3-4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일반: 가정의 보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인류의 보화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16일(목) 오후 5:00-6:00

8월 17일(금) 오후 8:00-9:00

8월 1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님 따라 한평생** : 가톨릭 대학장, 서울대학교 부좌주교, 광주 대교구장 등을 역임한 최창무 주교의 일생 4부작 마지막편
- **나눔** : 20년 가까이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 봉사자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 ·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8월 5일(연중 제18주일)

주일헌금	\$ 7,524.00
교무금	\$ 12,42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5,295.00
특별헌금	\$ 280.00
2차헌금	\$ 0.00
합계	\$ 25,52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성균(스테파노), 김경희,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사본),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로르),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사본),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순(셈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로르),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거비노), 장미래(아네스)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나시오), 이호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키엘) 703-881-115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페어팩스 부동산 Nina Park 703-303-699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